

# 肝者 罷極之本에 對한 五行論的 解釋

世明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김인락

## 1. 緒論

《素問》〈六節藏象論〉에서 “肝者, 罷極之本”이라 하였다. 1) 기존의 해석으로서 張隱庵이나 陳九如는 罷極을 (疲勞)라고 보았으며 2) 李今庸은 罷에서 四부를 삭제하여 能字로 보고 極자는 피로로 보아서 罷極은 피로를 이긴다라고 하였다. 3) 丹波元堅은 이와는 반대로 罷자에서 能자를 삭제하여 四極으로 보고 肝이 筋을 주관하므로 四極은 四肢라고 하였고 4) 王水은 肝이 筋을 주관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5) 張胡靈은 罷자를 李今庸의 說과 마찬가지로 能으로 보았고 極자는 의미를 棟으로 보아서 罷極을 인체에서 용마루처럼 중요한 일을 수행한다고는 의미로 보았다. 6) 이들 주석들 중에서 현재로서는 간을 피로의 근원이거나 피로를 견디어내는 장기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高世式은 특이하게도 罷는 罷와 같다고 하였지만 이렇게 본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7)

최근에 于天星이 心者生之本, 肺者氣之本, 腎者封藏之本, 脾者倉廩之本과 함께 검토하여 공통점이 두가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것이 高世式설의 근거가 된다고 하였다. 공통점이란 하나는 生, 氣, 封藏, 倉廩이 모두 생리적인 점이고, 다른 하나는 封과 藏이 의미가 같고 倉과 廩이 의미가 같다는 점이다. 이 두가지 공통점과 틀을

1) 이 부분은 楊上善이 撰注한 《黃帝內經太素》에서 애초부터 없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현재로서는 전해지지 않는다.

같이한다면 罷와 極은 의미가 같아야 하며 생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8)

본인은 《內經》의 기본사고가 음과 양이 평형을 이루는 것에 있고 이를 드러내는 《內經》의 문구들도 대구를 이루어 음양의 조화를 이룬다는 전제조건 아래 高世式의 설에 동의 한 바 있다. 9)

罷는 큰곰 熊자이고 極이 빠르다는 의미임을 생각한다면 罷가 의미하는 바는 큰곰처럼 날쌔다가 된다. 음운학적으로 볼 때에도 罷와 熊가 같은 부수에 속하는 것은 틀림없다. 다만 罷를 熊로 사용한 다른 예는 아직 찾아내지 못하였다.

보약으로서 대표적인 처방을 두가지 든다면 補中益氣湯과 六味地黃湯을 들 수가 있다. 이 처방을 만든 목적은 脾를 보하고 腎을 보하기 위하여서이지 肝을 보하려는 것은 아니다. 五勞·六極·七傷이란 말이

2) 張隱庵: 《黃帝內經集注》, “動作勞甚, 謂之罷極, 肝主筋, 筋主運動, 故爲罷極之本.”

陳九如: 《黃帝內經今義》, 正中書局, 臺北, 1986년.

3) 王琦等 編著: 黃帝內經素問今釋, 56쪽. 能은 耐와 같다.

4) 素問紹識: 或曰罷極當作四極, 四極見湯液醪醴論, 卽言四肢 肝其充在筋, 故云四極之本也.

5) 夫人之運動者, 皆筋力之所爲也. 肝主筋, 其神魂, 故曰 肝者罷極之本, 魂之居也.

6) 李國卿 主編: 素問疑難61쪽에서 인용.

7) 《黃帝素問直解》: 肝者, 將軍之官, 如熊羆之任勞, 故謂罷極之本.

8) 于天星按: 黃帝素問直解,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82, 83-86쪽.

9) 《內經》의 몇몇 句節에 對한 對句法的 研究 (1),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91년.

있는데 이는 모두 피곤함을 의미한다. 五勞는 肝勞, 心勞, 脾勞, 肺勞, 腎勞로서 肝만이 피곤함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장 모두가 피로와 관련이 있다.<sup>10)</sup> 이로서도 肝을 피로의 근본이라든가 피로를 이기는 장기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肝者, 罷極之本을 오행의 원리에 근거하여 해석하고자 한다. 五行과 季節에서는 오행의 내용이 계절과 일치한다는 것을 밝히고, 土의 兩面性에서는 土가 계절로는 장마와 같고 장마는 봄 여름 가을 겨울보다는 뚜렷하지가 않으므로 토는 長夏와 四季 두가지가 있다는 것을 논한다. 五行과 五臟에서는 五行의 내용이 인간에서는 五臟의 기능과 일치한다는 것을 밝히고, 肝者 罷極之本과 봄의 현상들에서는 간의 기능이 봄에 드러나는 현상들과 같으므로 罷極之本의 내용도 이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에 근거하여 의미를 파악하기로 한다.

## 2. 本論

### 2-1. 五行과 季節

五行이란 세상을 관찰하고 표현하는 기본틀인데 行자가 가다는 의미이듯이 세상의 변화는 목화토금수 다섯단계로 변한다고 본 것이다. 오행의 기준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변화에 근거하여 나왔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계절변화를 관찰하여 오행의 내용을 찾는 것이 편리하다. 왜냐하면 《內經》에서는 세상을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 셋으로 보았는데 하늘은 시간을 땅은 지역을 사람은 개인과 인간사회를 의미하며 《內經》의 전편을 살펴보면 언제나 시간이 위주이기 때문이다.

지역적인 것은 《素問》〈異法方宜論〉 하나 정도이고 개인에 관한 것은 《靈樞》〈陰陽二十五人〉, 인간사회에 관한 것은

《素問》〈疎五過論篇〉 정도이다. 그나마도 道家이기 때문에, 儒家가 중요시하는 인간사회에 대하여서는 관심이 적고 개인에 관심이 있다.

본인의 추측으로는 《內經》이 지어진 때가 진한대이어서 중국이 통일을 이루었고 민족도 한족으로 구성되었기에 지역과 사람은 대동소이하다고 보고 오로지 시간만이 끊임없이 변하므로 이 시간을 기준으로 모은 것을 질서잡았을 것이다.

오행에서 목이란 계절로서는 봄과 같은 기운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화는 여름, 금은 가을, 수는 겨울을 의미한다. 1년 동안에 일어나는 변화를 축소한다면 하루에도 일어난다. 새벽닭이 울고서부터 아침까지가 봄과 같고, 아침에서 정오까지가 여름과 같으며, 정오에서 황혼까지가 가을과 같고, 황혼에서 새벽닭을 때까지가 겨울과 같다.<sup>11)</sup>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경계가 뚜렷하지않고 연속적이다. 봄의 첫날과 끝날은 비록 모두 봄이지만 날씨차이는 겨울 끝날과 봄 첫날의 날씨차이보다도 크고, 봄 끝날과 여름 첫날의 차이보다도 심하다. 봄을 따뜻하다고 하고 여름을 덥다고 하지만 봄 첫날은 겨울에 가깝고 봄 끝날은 여름에 가깝다. 겨울 끝날까지 춥다가 갑자기 봄 첫날에 따뜻해지는 것도 아니고 여름 첫날에 갑자기 더워지는 것도 아니다. 계절의 날씨변화는 언제나 점진적이다.

이를 표현한 것이 《素問》〈至眞要大論〉의 “春不沈, 夏不弦, 冬不澁, 秋不數, 是謂四塞”이라는 구절이다. 봄의 날씨는 따뜻하다는 말로 대표되지만 실제내용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변화하여 초봄에는 아직도 겨울같이 차다. 맥상도 봄 3개월이 시작되자마자 겨울의 沈맥은 완전히 사라지고 봄의 弦맥만 남는 것이 아니라 沈맥은 남아있

10) 李梴:醫學入門, 諸虛

11) 《素問》〈金匱眞言論篇〉

으면서 弦맥이 드러나게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沈맥은 점점 줄어들고 弦맥은 점점 뚜렷해진다. 마침내 여름이 되면 弦맥은 서서히 사라지고 數맥은 점점 더 드러나게 된다.

만일 봄이 되자마자 겨울의 沈맥은 완전히 사라지고 弦맥만 남고 여름이 되자마자 봄의 弦맥은 완전히 사라지고 여름의 數맥만 드러나고 가을 겨울에도 그러하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네 기운이 막힌 것이므로 四塞이라고 한다.<sup>12)</sup>

결국 애초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따로 있고 인간이 이를 이어붙여서 1년이 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1년을 인간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어 본 것이다. 오행도 마찬가지로 애초에 목화토금수가 따로 있는 것을 인간이 이어붙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것을 인간이 목화토금수로 나누어서 관찰하고 표현한 것이다.

이러하므로 오행을 영역할 때 흔히들 5 element라고 하지만 element란 목화토금수가 각각 독립된 것이어서 목에는 화토금수가 전혀 없이 순수목으로 존재하고 화토금수도 그러할 때에야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다. 오행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목은 목만으로 존재하지 않고 목 속에 화토금수가 모두 들어있으면서도 목이 위주가 되는 것이다. 화토금수도 그러하다. 그러하므로 원소론은 실체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지만 오행론은 변화하는 것을 다섯으로 무리지어 관찰하고 표현하려는 것이다.<sup>13)</sup>

《素問》〈金匱眞言論〉에서는 “東方青色, 入通於肝, ... 其類木,....”이라고 하였다. 만일 이것이 원소론에 입각하여 쓰여진 것이라면 동쪽과 파란색은 모두 나무로 이루어졌다는 말이 되지만 실제로는 오행론으로 쓰여진 것이어서 동쪽이나 파란색, 간은 모두 성질상 오행의 목으로 무리지어 수

12) 白楊:如何理解“春不沈, 夏不弦, 冬不澁, 秋不數, 是謂四塞”(雲南中醫雜誌, 1985, 封3)

가 있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오행적인 사고에서는 세상 모든 것을 속성에 따라서 목화토금수 다섯으로 무리짓는다. 그리고 관찰해야 할 대상이 주어지면 이를 오행 모두로 관찰해야 하고 또 오행 모두로써 표현해야 한다. 만일 목만으로 관찰하고 표현한다든지 목만을 제외한다든지 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오행중에서 목이라고 관찰하고 표현한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이를 관찰대상으로 한다면 여전히 오행 모두로써 관찰하고 표현해야 한다. 결국 오행에서는 목에도 화토금수가 담겨있어서 순수한 목만을 분리하기는 불가능하다. 화토금수도 그러하다. 최근에는 five evolutive phases 라고 영역하기도 하는데 오행이 진화하는 것이냐는 데서는 문제가 있지만 변화함을 나타내는 데는 우수하다.<sup>14)</sup>

## 2-2. 土의 兩面性

五行에서 토는 특이하게도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토가 목화금수와 대등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목화금수에 종속되는 경우이다. 1년 365일로 본다면 전자는 목화토금수가 각각 72일 정도씩을 차지하는 경우이고 후자는 목화금수가 각각 72일정도씩을 차지하고 토는 18일정도씩 4등분되어 목화금수끝에 붙는 경우이다. 甲乙木 丙丁火 戊己土 庚辛金 壬癸水라고 하는 경우가 전자에 속하고, 寅卯木 辰土 巳午火 未土 申酉金 戌土 亥子水 丑土라고 하는 경우가 후자에 속한다.<sup>15)</sup>

13) 수학자 김용운은 한국수학사(서울, 열화당, 1982, P.P.24-25.)에서 실체론과 생성론이란 용어로써 이를 설명하였다.

14) 매프리드 포커트의 설이다. 李成範, 具閔瑞譯: 새로운 과학과 문명의 전환, 서울, 범양사출판부, 1985, 298쪽에서 재인용.

15) 이러한 것은 오행뿐 아니라 음양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음양은 모든 것을 음과 양이라는 양면으로 관찰하고 표현하는 것이므로 음이라고

토가 양면성을 띄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푸는 열쇠는 오행이 계절변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으로 본다. 토를 계절과 관련지어 보면 長夏라고도 하고 四季라고도 한다. 장하는 여름과 가을 사이에 엄연히 계절 하나로 있다. 사계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끝에 18정도씩 차지하고 있어서 다른 계절 보다는 비중이 떨어진다. 기후로 본다면 토는 濕과 관련이 있다. 토가 습기와 관련이 있고 장하가 여름과 가을 사이에 존재하는 것

이라면 계절로는 장마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1년의 계절 변화에 있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뚜렷하지만 장마는 이들보다는 뚜렷하지가 않으므로 토는 장하와 사계 양면성을 띤다고 본다.

오행에서 토가 독립적이냐 않느냐에 따라서 오행의 상생상극이 적용될 때 달라진다. 토가 하나를 차지한다면 오행의 상생상극이 그대로 적용된다. 하지만 토가 분산된다면 오행의 상극이 적용되기가 힘들어진다. 이때에는 목과 금이 서로를 견제하고 수와 화가 서로 견제를 한다. 《周易》에서

한 부분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여전히 음과 양 모두로써 관찰하고 표현하여야 한다. 음과 양은 대명사이어서 구체적으로는 가리키는 것이 무한히 많을 수가 있다. 예를 든다면 상하, 좌우, 전후, 기혈, 영위, 심신등이 있다. 《素問》〈寶命全形論篇〉에서는 인간을 기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이를 하늘기운과 땅기운으로 나누었다. 《靈樞》〈本神〉에서는 인간을 하늘기운과 땅기운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하늘기운을 德이라 하고 땅기운을 氣라고 하였다. 그러하므로 전자의 기는 인간의 모든 것을 의미하고 후자의 기는 인간의 반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인간을 정신기혈이란 틀로 볼 때의 기와, 기혈로 볼 때의 기와, 정기신으로 볼 때의 기는 의미 범위가 다르다. 똑같은 용어이지만 관찰하고 표현하는 틀을 어떠한 것을 취하였는가에 따라서 의미하는 바는 달라지므로 《內經》을 해석할 때에 주의할 해야 할 부분이다.

龍虎相搏이라하고 水火不相射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 2-3. 五行과 五臟

계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素問》〈四氣調神大論〉에서 봄에는 드러내고 펼친다고 하고, 여름에는 번창하고 이삭이 췌다하였으며, 가을에는 받아들이고 담는다하였고, 겨울에는 닫고 감춘다고 하였다.<sup>16)</sup> 《玉機眞藏論》에서는 봄에 만물이 시작하고 생한다하였으며, 여름에 성하고 자라난다하였고, 가을에 거두어들이고 이루어진다고 하였고, 겨울에 합하고 감춘다고 하였다.<sup>17)</sup>

계절이 변함에 따라서 인체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오장의 기능이다. 《藏氣法時論》에서는 오장의 기능을 간은 흠어지려 하고, 심장은 연해지려 하며, 비장은 부드러워지려 하고, 폐는 거두어들이려 하며, 신장은 단단해지려 한다고 하였다.<sup>18)</sup> 이것은 계절변화와 완전히 일치한다.

그리고 맥상도 계절변화와 일치한다. 현맥을 예로 든다면 《玉機眞藏論》에서는 봄에 만물이 비릇하고 생겨나는 것처럼 맥의 기운도 올 때는 연하고 약하며 가볍고 허하면서 매끌매끌하게 잘 뛰며 단정하고 바르며 길다라고 하였다.<sup>19)</sup> 맥상을 설명하는

16)發陳,.. 蕃秀,.. 容平,... 閉藏.

17)始生,.. 盛長,.. 收成,.. 合藏.

18)肝欲散, 心欲軟, 脾欲緩, 肺欲收, 腎欲堅.

五味의 작용은 매운 맛은 흠고 짠맛은 연하게 하고 단맛은 부드럽게 하며 신맛은 거두어들이고 쓴맛은 단단하게 한다. 이런 작용과 오장의 기능을 함께 생각한다면 매운 맛은 간이 봄기운처럼 散하려는 것을 도와주고, 짠맛은 심장이 여름기운처럼 軟해지려는 것을 도와주며, 단맛은 비가 장하기운처럼 부드러워지려는 것을 도와준다. 그리고 신맛은 폐가 가을기운처럼 거두어들이려는 것을 도와주며 쓴 맛은 신장이 겨울기운처럼 단단해지려는 것을 도와준다.

방식도 계절변화가 이러하므로 맥상이 이러하다는 방식을 취하였다. 인간은 소우주이므로 자연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인간에게서도 그대로 일어난다고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삶도 계절변화에 맞추어지는데 <四氣調神大論>에서 자세히 언급되어있다.<sup>20)</sup> <靈蘭秘典論>에서는 오장의 기능을 정부조직에 비유하였다. 이는 인간사회가 복잡해지고 정부조직이 이루어진 뒤에라야 가능하므로 자연변화로써 설명하는 것보다는 훨씬 후대에 나온 것이다.<sup>21)</sup>

土의 성질이 두가지이듯이 五臟에서는 脾가 肝 心 肺 腎과 대응하기도 하고 때로는 종속적이기도 하다. <玉機眞藏論>에서는 脾가 정상적일 때는 독립된 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병적일 때에만 드러난다고 하였다.<sup>22)</sup> 脾의 역할중 하나는 肝 心 肺 腎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어서 다른 것들보다는 비중이 떨어지는 느낌을 준다. 그러하더라도 해부학적으로 본다면 脾臟이 하나를 차지하고 있어야 하므로 독립성과 종속성 양면을 동시에 지닌다.

이러한 예는 <宣明五氣>에서 찾을 수가 있다. 왕빙본에서는 五行에 충실하여 “五邪所見, 春得秋脈, 夏得冬脈, 長夏得春脈, 秋得夏脈, 冬得長夏脈.” 이라고 하였는데 이를 <太素> <四時脈診14>에서는 長夏를 삭제하고 가을에는 봄의 맥을 얻고 겨울에는 여름맥을 얻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봄과 가을이 서로를 억제하고 여름과 겨울이 서로 억제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素問> <平人氣象論篇>에서는 특히 하계도 비장의 양면성을 모두 적용하였다. 이 편에서는 맥상에 의하여 五臟을 5단계로 진단하였는데 5단계란 정상적인 것과 병적인 것, 그리고 죽을 것과 다른 계절에 병들 것과 지금 병들 것이다. 간과 심장에 대하여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봄에는 간

의 맥이 우세한데 모맥이 드러나면 가을 기운이 봄인데도 왕성한 것이다. 마침 계절이 봄이어서 간이 왕성한 때이므로 가을이 되어야 간이 세력이 줄고 肺가 왕성하여 간이 병들게 된다. 만일 毛脈이 심하면 비록 봄이긴 하지만 폐가 왕성하고 간은 약하므로 지금 바로 간이 병든다. 심장도 이와 같은 논리이다. 그러나 가을과 肺를 논함에 있어서는 火克金의 이치가 사용되지않고 있다. 가을에 모맥이 드러나면서도 弦脈이 있으면 봄에 가서 병들고 弦脈이 심하면 지금 바로 병든다고 하였는데 火克金의 원리가 적용될려면 현맥이 아니라 鉤맥이어야 하고 봄에 가서 병들 것이 아니라 여름에 가서 병들어야 한다. 겨울과 신장에 대하여 논함에 있어서도 土克水의 원리가 적용되지않고 있다. 石맥이 있으면서 鉤맥이 있으면 여름에 가서 병들고 구맥이 심하면 지금 바로 병든다고 하였는데 土克水의 원리가 적용될

20)여름을 夜臥早起라고 하였는데 이렇게 되면 봄에서와 같으므로 모순이다. <太素>에서는 夜가 晚으로 되어있다. 여름에는 봄에 비하여 낮이 더 길므로 晚臥가 옳다고 본다. (김인락: 內經의 몇몇구절에 대한 대구법적 연구 1, 대한원전의사학회지, 1991, 67쪽)

여기에서 臥와 起는 잠을 자는 것과 깨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臥는 잠들기 전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고 起는 잠에서 깨어난 뒤 활동하기 시작하는 시간이다. (김인락: 동양의학의 생사론 연구, 대한원전의사학회지, 1989, 95쪽)

만일 봄 3개월간 첫날부터 끝날까지 밤 똑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며 여름 3개월이 시작되는 첫날 잠자기 시간을 달리하여 밤늦게 잠자리에 든다면 양생을 잘못된 것이다. 1년은 연속된 것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사람들이 1년을 나누어 보는 것이므로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나오는 시간은 끊임없이 늦추어졌다가 당겨졌다가 하여야 한다.

21)이 편에 나오는 관직명 중에서 中正과 州都是 魏의 曹操이후에 설치된 것이다.

22)脾...善者不可得見, 惡者可見.

19)春脈者, 肝也, 東方木也, 萬物之所以始生也, 故其氣來濡弱軟虛而滑, 端直而長, 故曰弦, 反此者病.

러면 구맥이 아니라 緩맥이어야 하고 여름이 아니라 長夏이어야 한다. 결국 이편에서는 금과 목이 서로를 견제하고 수와 화가 서로 견제를 하는 셈이다.

이렇다면 脾에 대하여서는 언급을 하지 않아야 자연스러울 것인데도 여전히 脾에 대하여서도 언급을 하고 있다. 그리하여 長夏에는 연하면서도 약한 비맥이 있는데도 석맥이 있으면 겨울에 병든다고 하였다. 오행의 상극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木克土이므로 석맥이 아니라 현맥이어야 하고 겨울이 아니라 봄이어야 할 것이다.

#### 2-4. 肝者, 罷極之本과 봄의 현상들

간의 기능은 오행에서 목에 속하고 계절로는 봄에 드러나는 현상들과 같다는데 착안을 하여 肝者 罷極之本의 의미를 파악해보자. 봄이 되면 겨울동안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땅속에 묻힌 씨앗들도 껍질을 깨고 땅위로 새싹을 내밀게 된다. 이때에는 누구나 봄바람났다는 말처럼 가슴이 설레고 집안에 있기보다는 밖으로 나가고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진다.

《靈樞》〈本神〉에서는 간기운은 봄처럼 흩어지려고 하는데 슬퍼한다면 기운이 안으로모이게 되어 간이 상하고 간이 주관하는 혼이 상하며 생기가 상한다고 하였다. 반대로 폐는 가을기운처럼 안으로 모일려고 하는데 화를 내든가 지나치게 즐거워하면 기운이 겉으로 흩어지므로 백을 상하게 된다고 하였다.<sup>23)</sup> 간기운이 지나치게 왕성하면 기운이 폭발적으로 위로 치솟아 화를 내게 된다. 그러므로 화를 내면 피와 음식물을 토하기까지 된다.<sup>24)</sup>

이처럼 간기운은 봄의 계절처럼 무엇인

23) 因悲哀動中者, 竭絕而失生, 盛怒者, 迷惑而不治. 肝悲哀動中則傷魂, 魂傷則狂忘不精, 不精則不正, 當人陰縮而攣筋, 兩脅骨不舉, 毛悴色天死於秋. 肺喜樂無極則傷魄, 魄傷則狂, 狂者意不存, 人皮革焦, 毛悴色天死於夏.

가움직임이 왕성할 때이다.

소풍을 가는 것도 봄에 가야지 겨울에 간다는 것은 시절에 맞지않다. 그리고 유치원이나 국민학교 교실은, 마치 병아리들이 모인 것처럼 재잘거리고 왁자지껄해야한다. 노인교실모양 고요해서는 아니된다. 때로는 다치기도 하고 엉뚱한 일을 저지르기는 할지라도 무엇인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장난치고 까불고 싸돌아다니고 해야한다.

봄에 드러나는 맥상은 현맥이 된다. 〈平人氣象論〉에서는 현맥은 연하고 약하여 마치 손짓으로 누구를 부르는 것과 같고 장대의 가는 끝을 들었을 때 대나무가 휘청거리는 느낌과도 같다고 하였다.<sup>25)</sup> 현맥은 활줄을 당기고 놓을 때 느끼는 것처럼 탄력성이 뛰어난 맥이다. 우리나라 전통활은 角弓이라고 하는데<sup>26)</sup> 이를 만드는 재료는 7가지이다. 대나무와 뽕나무, 참나무, 물소 락과 소등심, 민어부레풀, 그리고 樺皮이

24) 王冰本에서는 吐血及滲泄이라고 하였는데 《太素》에서는 吐血及食으로 되어있다.

25) 平肝脈來, 濡弱(如)招招, 如揭長竿, 曰肝平, 春以胃氣爲本.

平心脈來, 累累如珠連, 如循琅玕, 曰心平, 夏以胃氣爲本.

平脾脈來, 和柔(如)相離, 如鷄踐地, 曰脾平, 長夏以胃氣爲本.

平肺脈來, 厭厭息息, 如落榆莢, 曰肺平, 秋以胃氣爲本.

平腎脈來, 喘喘累累如旬, 按之而堅, 曰腎平, 冬以胃氣爲本.

다른 구절과 비교를 한다면 모두 맥상을 설명하고서 다시 구체적인 것에 비유를 하였다. 그러하므로 濡弱다음에 如자를 보충하여야 한다. 脾脈에서도 和柔다음에 如자를 보충하여야 한다.

26) 현맥에 대하여서는 본인이 서울 사직공원 뒷쪽에 자리잡은 황학정에서 5년째 새벽마다 활을 쏘면서 깨달은 바가 있다. 활은 지역에 따라서 지중해형, 몽고형, 핀치형 등 3종류로 분류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활인 각궁은 몽고형에 속한다. 대한궁도협회: 한국의 궁도, 1986, 서울, 15쪽.

다. 뿐만 아니라 화살도 신우대란 대나무로 만든다. 활을 쏘기에 알맞은 때는 봄과 가을인데 이중에서도 봄이 더 알맞는 때이다. 이때에는 활의 복원력이 가장 좋아서 화살이 힘차게 날아간다. 겨울이 되면 활이 세어져서 당기기가 힘든데도 탄력은 오히려 떨어진다. 이를 맥상으로 보면 석맥과 같다. 여름이 되면 활은 물러져서 쉽게 당길 수가 있고 그만큼 활은 위력이 약하다.

이처럼 각궁이나 화살의 재료들이나 활 쏘기에 적당한 때는 모두 봄의 생기와 관련이 있고 오행으로 목에 속한다. 이러하므로 우리의 각궁은 탄력이 아주 우수하고 충격이 거의 없으며 쏘고난 뒤의 감이 상쾌하기로 유명하다. 이때의 느낌이 바로 현맥과 같고 봄의 생기를 북돋우어주므로 온몸이 탄력있고 생기가 넘치게 한다.<sup>27)</sup>

《素問》〈寶命全形論〉에서는 침을 놓을 때를 활쏘는 것에 비유하여 伏如橫弩, 起如發機라고 하였다. 伏如橫弩를 글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활을 옆에 놓아두고 엎드려 있다가 기회가 오면 그때에서야 노쇠를 잡고 쏜다는 것이 된다. 하지만 활을 쏘는 이치로 본다면 현실에 맞지 아니하다. 화살을 발사하기 이전에는 마치 겨울에 만물이 긴장한 것처럼 활을 당기고서 꼼짝않고 목표를 조준하고 있어야 한다. 겉으로 보기에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활은 오그라들려고 하고 사람은 힘차게 당기고 있다. 이를 滿作이라고 한다. 이처럼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비로소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쏠 수가 있다. 더구나 이것은 침을 놓는 것을 비유한 것인데 伏如橫弩라 하면 침을 옆에다 놓아두고 태평스레 있다가 邪氣가 이르면 그때에서야 비로소 침을

27) 각궁을 쏘고난 뒤의 느낌을 글로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쉽지않은데 낚시질할 때 물고기를 낚아채는 느낌 그리고 끌어올릴 때 낚시대를 통해 느껴지는 물고기가 바둥대는 감이 이와 비슷하다.

들고 찌르라는 것이 된다. 이렇고서도 기회를 제대로 잡을 수가 있을까? 이러하므로 橫은 彊(당길 확)을 빌린 글자라고 보아야 한다. 미리 화살을 끼우고 활줄을 당겨 꼼짝않고 기회를 노리고 있어야 하듯이, 침도 미리 단단히 잡고서 사기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재빨리 낚아채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四氣調神大論〉에서는 겨울에 양생을 잘못하면 봄에 생기가 줄고 간이 상한다고 하였다. 뒤집어 본다면 봄에 생기를 왕성하게 하려면 겨울에 겨울기운을 잘 기르면 된다.<sup>28)</sup> 마찬가지로 활을 쏘는 것은

28) 冬不按蹻, 春不病溫.

옹담이나 녹용, 개구리, 뱀 등을 보신용으로 애용하고 썩이나 냉이 등을 보면 생기가 뜬다. 왜 이들을 보면 생기를 느끼게 되는가를 생각해 보자. 일리아데(M. Eliarde)는 사슴, 개구리, 곰 등을 달동물(Lunar Animal)이라고 하였다. 달이란 초생달에서 보름달이 되지만 곧 그믐으로 기울고 또 다시 초생달로 되살아난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슴뿔은 해마다 빠지지만 봄이 되면 새로이 돌아오고 개구리, 곰 등도 겨울동안 죽은 듯하지만 봄이 되면 생기를 되찾는다. 냉이나 썩 등도 마찬가지이다. 마치 그믐달로 사라진 달이 초생달로 되살아나는 것과 같다고 믿기 때문이다. 신라 왕판에서도 사슴뿔 모양의 장식을 달고 있는데 이유를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다. 그리고 〈四氣調神大論〉의 이론으로는 뱀이나 개구리는 겨울잠을 자고 썩이나 냉이는 겨울의 찬 기운을 견디어 내었기 때문에 봄에 생기가 왕성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하므로 생기를 북돋우는 데는 음식물중에서 겨울기운을 잘 길렀기에 생기가 왕성한 것을 먹는 것도 한 방법이고 인간 자신이 겨울기운을 잘 기르는 것도 한 방법이다. 후자를 응용한 방법으로는 단식을 들 수가 있다. 내장조차 음식물을 소화, 흡수도 하지 않고 쉬게 되므로 이 보다도 더 깊은 겨울잠을 찾지만 쉽지가 않다. 그리고 단식을 하고난 뒤에 음식물을 먹기 시작할 때가 단식의 효과를 판가름하게 되는데 이를 잘 못한다면 생기는 오히려 손상되고 만다.

목의 기운을 기르는 것이므로 몸을 긴장시키고 활줄을 팽팽히 당겨 겨울과 같은 기운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sup>29)</sup> 이렇게 활을 쏘면 쏜살같이 빠르다는 말이 실감나고, 활줄이 공기를 가르며 소리가 활에 떨어지는 소리는 아무렇게나 쏜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 이 소리만 듣고서도 활쏘는 실력을 알 수가 있다.<sup>30)</sup> 힘의 법칙에서 힘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고 질량에 정비례하듯이 속도가 빠르면 그만큼 힘차게 된다.

이처럼 肝은 오행으로는 목에 속하고 봄에 일어나는 현상들과 같은 기능을 하여 탄력성이 뛰어나고 생동감이 있다.

그러면 큰곰에다 비유한 것은 무엇때문이고 또 큰 곰과 같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느리고 미련한 자를 곰같다고 하지만 罷極之本은 이러한 의미는 아닐 것이다. 곰이 몸을 세우고 앞발을 치켜들어 눈감쪽할 사이에 내리쳐서 연어를 낚아채는 장면을 연상한다면 의미가 뚜렷해진다. 華佗가 만든 五禽戲에서 熊勁치顯의 웅경도 단순히 곰처럼 선다라고 보아서는 아니된다. 똑바로 서는 것은 직립동물인 인간을 따라올 것이 없다. 그런데도 곰처럼 선다는 것은 퇴보를 의미한다. 이는 마치 활을 단단히 당

기고 있다가 기회가 오면 쥘싸게 화살을 날려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곰이 앞발을 들고서 내리칠려는 듯이 힘차게 서라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sup>31)</sup> 다른 비유를 든다면 100미터달리기 선수가 출발선에서 몸을 움추리고 있다가 출발신호와 동시에 쥘싸게 뛰어나가는 것과 같다고 본다. 이렇게 보아야지 간의 기능과 봄의 기운이 들어맞게 된다.

### 3. 結論

肝者 罷極之本에 대하여 역대 내경연구자들의 주석중에서 肝을 피로의 근본이거나 피로를 이겨내는 근본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五勞 六極 七傷에서 보듯이 肝만이 피로를 주관한다고 보아야 할 이유는 없다. 高世式은 罷를 罷라 보고 極과 의미가 같다고 하였다. 이렇게 본 근거를 于天星이 心은 生의 본이고 肺는 氣의 본이며 腎은 封藏의 본이고 脾는 창름의 본이라는 것과 틀을 같이 하자면 罷와 極이 생리적이어야 하고 의미가 같아야 한다고 근거를 밝혔다.

29) 활을 쏘는데 있어서 8가지 기본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는 흉허복실이다. 이는 횡격막을 기준으로 아래는 무릎과 배를 뒤로 밀고 엉덩이는 앞으로 밀어서 일직선이 되도록 하며 단단히 힘을 주어야 한다. 대신 횡격막위는 가슴과 목에 힘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이 자세는 활을 쏘기 전뿐만 아니라 쏘고 나서도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몸이 흔들리게 되고 화살이 사대에서 파년까지 145미터를 날아가는 동안에 오차가 크지게 된다.

그리고 활을 당기고 있다가 기회를 잡아서 화살을 날려보내는 동작은 담에서 결단이 나온다고 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대담성이나 결단력이 부족한 자들은 활을 당기고만 있다가 발사할 기회를 놓치든가 아무렇게나 발사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30) 五音을 角, 徵, 宮, 商, 羽라고 하는데 이는 높낮이보다는 음의 빛깔 다시말하면 음이 주는 느낌을 의미한다. 봄이 되면 날씨가 따뜻하고 만물이 소생하고 땅속에서 위로 돌아나듯이 목음의 성질도 이와 같아야 한다. 그러하므로 각음이란 서양음악의 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빨과 빨이 부딪치는 소리, 바람소리, 나무와 나무가 부딪치는 소리, 바이올린이나 첼로, 가야금, 거문고 등 현악기 소리이다. 이런 소리들은 용수철이 튀어오르듯이 현맥이듯이 생기를 북돋우어 준다.

반대로 상음은 가을과 같은 느낌을 주어야 한다. 어딘지 싸늘하고 슬퍼지며 몸과 마음이 가라앉는 느낌이어야 한다. 금관악기 소리, 칼가는 소리, 칼날이 부딪치는 소리등이다.

31) 곰이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熊膽이다. 膽에서 決斷이 나오는 것을 생각한다면 간을 罷에다 비유한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본다.

이 논문에서는 오행의 내용이 자연에서는 계절변화와 같고 인간에서는 五臟의 기능과 같다는데 착안하여 罷極의 의미를 검토하였다. 간의 기능은 오행으로는 木에 속하고 계절로서는 봄에 드러나는 자연현상과 일치한다. 겨울동안 죽은 듯이 얼어붙고 겉으로는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보이던 것이 봄이 되면 되살아난 듯 식물들은 새싹이 파릇파릇 돋고 동물들은 생동감있게 움직인다. 간기능도 이와 마찬가지로 肝者 罷極之本은 이를 표현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하므로 罷極은 봄에 만물이 생동감 넘치고 온동성이 뛰어난 것을 표현한다. 아울러 罷와 極이 의미가 같고 생리적이어야 하는 조건을 만족케 하자면 罷는 顯이고 의미는 큰곰처럼 날쌔다로 보아야 하며 極은 의미를 재빠르다로 보아야 한다.

對句法的研究(1),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91.

16. 金仁洛: 東洋醫學의 生死論 연구,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89.

### <參考文獻>

1. 金雲容: 韓國數學史, 서울, 열화당, 1992.
2. 大韓弓道協會, 韓國의 弓道, 1986.
3. 李成範 具閔瑞 역: 새로운 과학과 문명의 전환, 서울, 범양사출판부, 1985.
4. 高世式: 黃帝素問直解,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82
5. 丹派元堅: 素問紹識.
6. 白楊: 雲南中醫雜誌, 1985.
7. 楊上善 撰注: 黃帝內經太素, 人民衛生社, 北京, 1983.
8. 王琦 등 편저: 黃帝內經素問今釋.
9. 王冰: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
10. 李國卿 주편: 素問疑識, 黑龍江人民出版社, 1989.
11. 李挺: 醫學入門.
12. 張隱庵: 黃帝內經集注.
13. 陳九如: 黃帝內經今義, 正中書局 臺北, 1986
1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15. 金仁洛: 《內經》의 몇몇구절에 대한